

1 소의잠난정도 **옛 그림 속 차 이야기**

‘난정기’에 기록된 사찰 다법 보여줘

중국 당(唐, 618-907)는 불교가 흥성한 시기였다. 또한 사찰에서는 차를 마심으로써 수행 도중에 찾아오는 수마(睡魔)를 경계했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기능으로 널리 응용했다. 근래에 차를 생각하면 자연스레 사찰이나 수행이 떠오르는 것도 이처럼 당대에 차가 도(道)를 만나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결과이다. 우리 역시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융성과 더불어 전례 없이 차 문화가 확산되고 정자 다원이 유행한 사실도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사찰에서는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 차를 마셨을까. 대북고궁박물관에는 당대에 사찰에서 손님을 맞아 차를 마시는 장면을 그린 작품 한 점이 전해지고 있다. <소의잠난정도(蕭翼賺蘭亭圖)>는 궁정 화원으로 활동한 염립(顏立)의 그림을 송대의 화가가 모사한 작품이다. 그림은 사찰의 다법을 보여주는 진귀한 자료로 내용은 하연지(何延之)의 <난정기(蘭亭記)>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있다. 이야기에 따르면 동진(東晉)시대 서법의 대가 왕희지는 4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금의 중국 소흥(紹興)지방의



전 염립본(關立本, ?-673), <소의잠난정도>, 비단에 채색, 27.4x64.7cm, 대북고궁박물관 소장.

난정에서 큰 모임을 가지고 <난정서>를 완성했다. 왕희지가 죽은 후 난정서는 그의 7대손인 지영에게 전해졌으며, 이후 지영의 제자인 변재 화상이 이것을 소장하게 됐다고 한다. 당태종은 변재 화상이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음을 알고는 세 번이나 사자를 보내 그에게 <난정서>를 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는 매번 전란 중에 이를 유실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를 전해들은 태종은 모략과 재주가 있는 소의를 허물한 서생으로 꾸며 <난정서>를 빼내오도록 했는데 그림의 장면은 바로 소의가 변재 화상을 찾아가 차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화면 중앙에는 선의(禪衲)에 기대앉아 왼손에 불전을 들고 있는 노승 변재가 보인다. 무뎠던 인상의 그는 소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뒤편에 서있는 스님은 소매 안에 손을 넣고 <난정서>를 훔치기 위한 계책을 숨긴 소의의 내면을 알아보고자 한 듯하다. 이처럼 인물들의 내면적인 개성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느껴지고 필묵(筆墨)에는 고고함이 드러난다.

화면의 왼쪽에는 하인 두 명이 차를 달고 있다.

사찰 안에서 차를 준비하는 모습과 그곳에서 사용된 다구의 모습이 사실적인 표현으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수행이 필수적인 하인은 한 손에 다첩(茶帖)을 쥐고 차를 들고 있으며, 그 옆에 차들은 차를 들고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분다(分茶)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술에 차를 넣고 끓여 잔에 나누어 담는 당대 사찰에서의 전다법(煎茶法)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는 것이다.

당대부터 사람들은 차를 도(道)와 예(藝)에 연관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시는 사람의 덕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 일찍이 유유는 <다경(茶經)>에서 ‘겸양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만이 차를 마실 수 있

다’고 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미감이 차가 상응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차나 한 잔 마시게(喫茶去) 喫茶去”라는 화두로 많은 선승을 깨우쳤던 당나라의 조주 선사도 차를 깨달음의 도구로 삼았다. ‘地水火風’의 작용 속에서 중정(中正)의 이치를 얻은 차를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견(正見)’을 지나는 것은 불도를 터득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된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차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소통의 장이 됐는데, 소의는 이러한 차의 효능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다시 유유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니 차 마시는 수행의 준비단계가 아닌 듯하다. 차를 달기 전에 이미 정신이 오롯해지고 마음자리를 가지런히 하는 것은 ‘떡망 있는 자만이 차를 마실 수 있다’던 유유의 준엄한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차를 마시기 전부터 이미 수행의 순간이니 일상을 내내 평정토록 하는 속 깊은 교훈이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1 낙산사 칠층석탑



낙산사 원통보전 앞에는 칠층석탑이 하나 서있다. 탑아래기보다는 팔 다리가 없는 토르소(torso)처럼 보였다. 역사와 세월이 만든 조각 작품이었다. 몇 해 전 큰 산불로 낙산사가 스러져가던 날, 검게 그을린 칠층석탑은 한 줌 재로 변한 원통보전 앞에서 또 한 번 사라진 역사의 미망인이 됐다.

칠층석탑이 검은 상복을 벗고 젖은 눈을 뜨던 어느 가을 날, 원통보전은 꿈처럼 다시 세워지고 낙산사는 그림처럼 다시 태어났다. 역사가 슬픈 세월 속으로 사라질 때마다 석탑은 늘 홀로 남겨졌고, 또 다시 낯선 역사 속에 홀로 서야 했다. 역사를 목격한 대가로 때이른 석탑의 살점들은 어디로 갔을까.

바람도 석탑을 지날 땐 석탑만큼 부서져야 석탑을 지나갈 수 있었고, 가을햇살도 석탑만큼 부서져야 석탑을 꼭 안을 수 있었다. 그것들이 사라진 석탑의 살점들이 아닐까. 석탑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석탑의 사라진 살점이 되고 있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詩가 있는 도량

간절곳에서 고래를 기다리다

푸른 바다 북을 치는  
당신의 힘찬 해업  
그래서 해가 뜨고  
저 바다는 푸른데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자꾸자꾸 애가 탄다

당신을 기다린다  
목이 빠진 저 간절곳  
고래 없는 저 바다는  
바다도 아니라고

끝내 내리 만났가 부르도 또 찾아가면

-이종암, <유심> 7·8월호에서

옛 **판화의 세계**

백장 스님이 청규를 만들다  
백장청규(百丈淸規)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백장회해(百丈懷海)가 백장산에 주석하자 선승들이 구름같이 운집했으며, 선원을 세워 선원이 질서 있게 유지되게 청규를 정해 선원의 기풍을 마련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 스님은 당나라 복건성(福建省) 복주(福州) 출신으로, 백장산(百丈山)에서 주석했기 때문에 백장회해라고 부른다. 서산해조(西山慧照)를 따라 사발했으며, 여강(廬江)의 부차사에 들어가 그곳의 경장(經藏) 안에서 대장경(大藏經)을 연구했다. 767년 무렵에는 남강(南康)에서 마조도일(馬祖道一)을 만나 대오했으며, 백장산에 들어가 많은 제자들을 교화했다. 제자 중에는 황벽회운(黃檗希運)과 위산영우와 같은 뛰어난 제자들이 배출됐다.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며, 하루 먹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백장의 선풍(禪風)을 드러내는 유명한 말이며, 백장산에 율원(律院)으로부터 독립한 선원(禪院)을 창설하고 다시 율전(律典)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 선종 특유의 규율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백장청규(百丈淸規)’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도승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급자족하는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됐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의 도를 널리 펴 근원적으로 교화해 먼 미래의 끝까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찌 <아람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옳겠는가? 대승과 소승의 율법 가운데 넓고 요약한 것을 절충해서 규약을 마련하고 모범을 제정하여 선으로 돌아가게 힘쓰는 것이 옳다.” 이에 따라 선법을 세워 도안(道眼)을 얻은 사람을 장로라 부르게 했으니 이는 서역에서 도가 높고 법랍이 높은 사람을 수보리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곳에 모여 배우는 대중들의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승당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승당 안에는 길게 이어진 선상에 횡대와 시렁을 시설해 도구를 걸고 앉아 놓게 했으며, 누울 때는 반드시 비스듬히 선상의 요 위에 베개를 베고 누워 그가 좌선한 지가 이미 오래됐기에 간략히 몸을 돌려 쉬게 했을 따름이었다. 아침에 잠문과 저녁에 모이게 하고 음식은 각자 좋은 데 따라 먹게 하되 절약 겸손한 기풍을 보여주게 했다.” 백장청규가 제정되면서 모든 선원들은 이를 따르게 됐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신인사지(神人捨地)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각(半郭) 272×18.0cm

대관신청기간 : 2009년 9월 30일까지

2010년 대관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2층 전층 436평

- 전관 1360㎡(412평) (공유면적포함)
- A관 700㎡(212평) "
- B관 660㎡(200평) "
- 1관 554㎡(168평) "
- 2관 462㎡(140평) "
- 3관 343㎡(104평) "
- 사무실 80㎡(24평) "

첨단 전시 시설을 갖춘 대형 전시장!!

한국미술관은 대표 화랑가인 인사동의 중심 인사동사거리에 위치한 대형 전시관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미술 애호가,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시 작가들의 작품 홍보에 최적의 위치로, 최상의 전시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관신청 문의 및 접수

TEL : 02)720-1161-2  
H·P : 011-275-4330 관장 이효연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2층  
홈페이지 : www.koreagallery.co.kr



불자가 개관한 미술관입니다. 불교서적과 미술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이화문화출판사에서 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불자님과 스님의 전시를 정성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화문화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67-2  
TEL 02)732-7096~7 / Fax 02)738-9887

2010 불교달력출시

공장→사찰 직거래판매

달력가격 대폭인하

창립35주년 기념세일(임시할인가)

생산자

도매상

불교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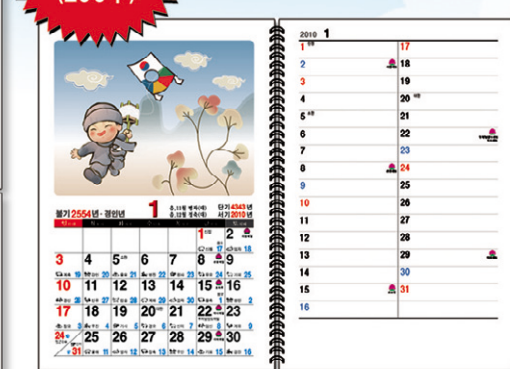
사찰



11호 물소리바람소리

18호 시가 있는 풍경

다이아리 120,000원 (200부)



※ 달력가다록·용품가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세요.